

제 186 호

삼위일체 대축일

1976. 6. 13.

# 숲 정 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훈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강론 ●



## 그리스도 공동체와

### 중풍병

양재철 신부

나는 얼마전에 중풍으로 누워있는 열심히 신자를 방문한적이 있다. 그는 나를 보자 하소연하듯 축느러진 한쪽 다리를 매만지며 “신부님 어떻게 해서라도 힘빠진 이 다리를 낫게 할수는 없을까요?” 팔자를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신자이기 이전에 평범한 한 인간— 투병하는 인간—의 솔직하고도 절박한 소원으로 엮으리라…… 지금도 그때의 광경이 눈에 선하다.

그일을 회상해보니 문득 생각나는것이 있다. 우리교회 공동체 안에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중풍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않는 영적인 중풍— 지체마비에 걸린 형제는? 하는 생각말이다.

오늘 삼위일체 축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불구자— 중풍환자—는? 하는 생각이 떠오른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온전히 하나이시며 삼위이신 하느님—은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 공동체이신 하느님께서는 창조시초부터 인류 ‘아담’을 공동체어로 부르시고 계신다. 신앙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실때도 그러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시나이산에서 당신의 신민으로 부르실때도 그러했다. 더욱 신약에와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고, 하느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시어 우리를 이안에 불러 주시었다. 우리의 종교는 분명히 공동체의 종교이다. 예수그리스도의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 말씀과,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한 교훈은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밝히고 있다.

공동체이신 하느님, 인류를 공동체로써 구원하시길 원하시며 최후심판때에도 공동체생활을 잘한이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이는 멸망하리라! 이것이 공동체이신 하느님의 준엄한 뜻이다.

만일 우리중에 아직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신자가 있다면 그를 중풍병에 걸린 지체마비자라고 진단한다고해서 오진일런지……?

— ◇ — ◇ — ◇ — ◇ — ◇ — ◇ — ◇ — ◇ — ◇ —

“중풍병자여 일어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주현동 천주교회>

## \*이 주일의 미사 해설\*

### \* 삼위일체 대축일 \* (기도서 P. 313)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주재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바치는 날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은 인류에게 당신 자신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다가 드디어 그리스도에 이르러 당신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계시의 절정이라 하겠습니다.

□ 제1독서(신명기 4장 32-34절, 39-40절)

이스라엘을 신민으로 택하시어,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야훼의 업적을 회고합니다. 야훼께서는 하느님과의 유일한 하느님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하느님은 없습니다.

□ 제2독서(로마 8장 14-17절 p.352)

성신의 능력이 인간에게 역사하시면 그 인간은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생명속으로 들어 가게 됩니다. 그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가 됩니다.

□ 복음(마태오 28장 16-20절 p.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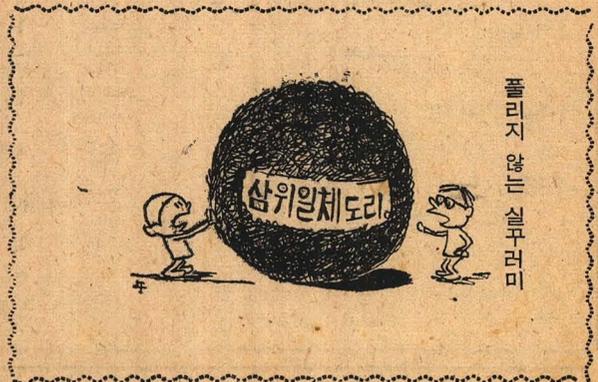
아버지 하느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고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성체를 베풀라는 사명을 주어 제자들을 온 세상에 두루 보내십니다

□ 영성체 후 묵상

빠스카의 대축제를 마친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주재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 분 하느님께 삼위가 계시다는 신비를 우리 머리로 는 도저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른의 사랑만은 우리 마음이 체험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믿고 영세하여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생명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그 생명을 그들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 숲 정 이 산책



풀리지 않는 실무래미



# 교황 대사를 모시고 (4)

—교구 방문 제4일 (5월 9일)—

韓 相 甲

교황대사 도세나 대주교님의 교구방문 마지막 날이다. 미사가 봉헌되는 중앙성당은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다. 마침 주일인데다가 전주 시내 6개 본당의 10시 미사는 중앙성당으로 쏠집을 맞았다. 미사는 두분 주교님과 전주 시내 신부님들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다.

강론은 미리 준비된 내용을 말씀하셨고, 한봉섭 신부님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읽었다. 그 내용은 지난 5월 16일자 순정이 제182호에 소개된 대로다. “.....항상 모범적 천주교 신자가 되십시오. 이 이름을 부끄러워 하지 마십시오. ....”

교황대사는 영생체 때 교황 성하의 자부(慈父)다운 모습을 보여 주셨다. 매우 짝 짜여진 일정이기 때문에 교황대사 자신이나 수행원 모두가 상당히 피로했다. 그런데도 본당을 다니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신자들의 손을 잡아 격려해주던 교황대사의 모습에서 교황 성하의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영생체 때도 마찬가지로 인간 루이지 도세나씨는 무척 피곤했었지만, 교황 성하를 대리한 신부님께서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성체를 영해 주셨다.

미사의 끝부분에 교황대사께서는 장엄하게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들 사이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초청해주고 준비해준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발전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신 사랑하는 형제 아우구스또노 주교님, 감사합니다.

실천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당신의 주보성인이 과거에 하신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힘껏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많은 신자들의 인자하신 아버지로 사십시오. 악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겐 용서하시고 인자하십시오. 약한 사람들도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성소 계발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고,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라오도록 기도하십시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황 강복으로 미사는 끝나고 이어 공식적인 환영식이 시작되었다.

김주교님은 환영사에서 “어려운 일정 가운데 애쓰신 교황대사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많은 순교자들의 시복

과 복자들의 시성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셨다.

6만 평신도를 대표한 평협회장 조성호씨는 “방문해주신데에 감사”드리며, 한국적인 여천하에서 정의와 진리를 말하다가 고통받는 성직자들과 지성인들을 기억해주실 것을 말씀드렸다.

예물이 증정되고, 중앙성당 정문위에 장식되었던 교황대사의 초상화를 관례에 따라 중앙성당 사도회장단이 교황대사께 증정했다.

답사에서 교황대사는 “순교자들을 향한 뜨거운 열성”에 흐뭇해 하시며, 그들이 하루빨리 시복 시성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요청됨으로 “오직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 에 힘입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시며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다.

점심식사는 가톨릭센터에서 전주 시내의 성직자, 교구 내의 수도자와 평신도 대표들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시종일관 수행하며 활영해온 장남수(스타사장)씨에게 교황대사는 기념 메달과 책 한권을 주셨다.

점심 후에는 국군묘지를 거쳐 누갈다 묘지, 성직자 묘지로 해서 교구청에 들리셨다가 서울로 향했다.

국군묘지에서는 현화하고 향을 피웠다. 시청에서는 안 내인을 보내주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교황대사는 탈장(脫腸)의 고통을 무릅쓰고 산을 오르는 강행군을 하셨다.

누갈다 묘지에도 역시 현화하고, 천진(성십여교 교간) 선생님으로부터 누갈다와 요한의 사적을 영어로 들었다 “천주교구 신앙의 두 기둥인 누갈다와 요한의 묘소에 참배한 영광”을 감사하신 교황대사는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정결의 아름다움> <혼배의 거룩함>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거룩함>을 지적하셨다.

방ziger 3회 회원들의 노력으로 잘 다듬어진 길을 통해 성직자 묘지에 내려와 다시 현화하고 전주천을 건넜다.

신자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교구청에 들렀다가 고속도로에 들어서니 오후 5시, 긴 일정이 끝났다.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의 뜨거운 열성도 보았고, 실무진의 준비부족도 보았다. 평소에는 별로 쳐다보지도 않던 나환자촌에 하루 전날에서 자갈 모래를 까는 알뜰함도 보았다. 수행원 하나 데리고 오지 않은 교황대사의 모습도 보았다. 이 모두를 기억해봄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함이다.

<教區 平協 事務局長>

\*여성 여러분에게 사랑을 팝니다\*

## 세느의상실

최순사(모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꽃상여, 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최씨관집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최병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② 6691(교환85번)

自宅 ③ 5418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한약방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 밑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③ 4544

□ 여기에 사랑의 다리를 □

## 어떤 편지에 서

“수찬미예수.

(前略) 저는 조부모님 때부터, 그리고 현재에도 전가족이 가톨릭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은 신대인 본당 진흥리 공소입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으나 배움을 향한 일념을 지버릴 수 없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 각고끝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실정인지라 고향에 내려와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에 금년에 입학했습니다.

다소간 집에서 부쳐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자니 워낙 빈한한 농촌의 살림인지라 보고 싶은 책 한권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또한 2학기 등록금도 부모님께만 의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일자리를 구해보고 싶지만 전주에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반 학우들에게도 부탁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첫번 서찰부터 이런 글월을 올리는 것이 실례인줄 아오나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시간제 가정교사를 할 수는 없을까요?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는 강의가 없으니 사회경험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자리는 없을까요? 방학동안이라도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인줄 아오나 우선 서찰부터 드립니다. 나중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교회의 폭넓은 대중화로 온 누리에 하느님의 영광이 깃들기를 하늘에 계신 주님께 비으며 선생님의 무고하심을 기원합니다.

1976년 5월 14일”

이러한 편지를 가끔 받는다. 또는 직접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만나기도 한다. 딱하기 그지없다. 묘안이 없을까? 있을 법도 하다.

어떤 때는 가정교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한다.

이 기회에 무언가 <사랑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 기간 동안 <순정이 편집실>이 매타자 노릇을 해보기로 한다. “제 눈으로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

순정이 주소 : 우편번호 520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내(사목국) 전화 3-5098

## 요심이 (150) 김병인

각목을 들고 죽으라고  
싸운 사람들이  
친선방문차  
출국한다고?



싸움줄도 알고  
친선도 할줄  
아는지



가서 확인  
해보자

여행목적은?

외국에 나가  
바람도 쐬고...



피로회복해서 돌아와  
다음엔 더몸감히  
싸우기 위해서...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 임금님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원준(야코베)

### 여자보세공 모집

1. 자격 : 17세 이상
2. 모집인원 : ○ ○명  
※수시 모집함
3. 연락처 : 전화 ③8466  
전주시 전동성당 골목  
김영환 (아오스딩)

★교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

### 전주 기아 용달사

차량번호 7-1058호

차주 김완식 (아오스딩)  
회사 전화 ⑤1524, ⑤2874  
연락처 자택전화 ⑤0439

\*교우 여러분들을 특별 우대함\*

농약, 씨앗, 농기구

### 고농농약사

전주시 전동 1가 303의 7  
점포 전화 ④4740번  
박태수 (벨라도)

\*교우들의 선물 센터\*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 아세아 종합 스토아



강영옥 (로모알드)  
남문 신탁은행 앞  
전화 ④4007, ④7007

◎교우 여러분께 특별 봉사함

새롭고 저렴한 연탄보일러 온돌 안내  
한국은수산업사  
전남북 총판, 기술보급소

군산지점 7211  
정읍지점 2157  
부안지점 736

이리시 인화동 2가 65-16 (전화 4940)  
한 등 암 (모이세)  
※각 지방 대리점 구함

불러 주시면  
언제라도

### 연탄

어름

신속, 정확, 친절  
배달하겠습니다

이영희 (다두)

◎전주시 전동 성당 골목  
(전화) ④ 8 4 6 6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공지 사항 ※

1. 성체회 중신 서원식 17일(목) 오전 11시, 노송동 성당
2. 사제 양성 후원 기금 누계 5,310,082원, 감사합니다.  
군산 둔용동 성우회 (150,000원), 조경만 (100,000원), 홍진표 (50,000원), 조용덕 (50,000원),  
홍영애 (25,000원), 황등 분당 (150,000원), 무주 분당 (50,000원), 정읍 분당 (50,000원).
3. 문정현 신부님 위한 헌금 누계 770,561원, 감사합니다.  
문 신부님의 동창 신부님들 (50,000원), 김후상 신부님 (10,000원), 중앙 우리 즐거움의 연유 (600원)
4. 교황대사 교구 방문시에 촬영화 사진이 분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신청해 주시죠.  
교황대사 교구 방문 기간 중 4일동안이나 자신의 영업을 뒤로 돌리고 수고하신 스타사장 장남수씨께 감사드립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수석보좌 신부 한 불 섭  
제2 보좌 신부 김 영 함  
사 도 회 장 김 병 상  
사 도 회 장 이 상 환

1.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후(각위원장, 구역장 반장)
2.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3.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중·고등학생 교리: 학생미사후(중·교리교실, 교·당당)
5. 5분 교리실시: 주일 매 미사후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신용협동조합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 후
2. 애령회 간부 월례회: 다음주일
3. 각 구역 15일(화)부터 병자성사가 있으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성체회 중신 서원식: 17일(목) 분당에서 오전 11시
5. 결혼한 후 교회에 입교하신 분들을 위한 혼인강복 6월 20일(일)로 연기했습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용 환

- ☆ 덕진 천주교회 신축 위원회 이사회: 총재-박종근신부  
위원장-최낙범, 부위원장-김경규, 김용환, 고문-유  
훈석, 임기섭, 김정기, 임옥순, 김중환, 송영기, 조준철  
성, 박영철 ① 기획부<부장-남상용, 차장-김인철  
송정원> ② 설외부<부장-김동선, 차장-최부남, 김  
은식, 위원-각 구역회장, 공소회장, 각 단체장>  
③ 재경부<부장-유제상, 차장-소완영, 김주철 위  
원-각 공소부 회장, 각 반장> ④ 기술부<부장-이  
귀연, 차장-문홍주> ⑤ 감사-김용식, 정연희
1. 어린이 미사시간 변경: 교리- 토요일 오후 4시, 미  
사-5시
  2. 어머니 설가연습: 토요일 오후 3시
  3. 학생과 젊은이들의 시간: 토요일 오후 8시
  4. 어린이 성체식: 14일 10시반, 어머니 미사 후
  5. 예비자 교리: 주일 공식미사 후
  6. 중·고등학생 월례회: 공식미사 후
  7.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공식미사 후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2. 반 회 합: 15일(화) 15반 양 바울라씨에서 요안반장  
(응골), 16일(수) 16반 박 마리아씨에서 신 세노피아 반  
장(응골), 17일(목) 1반 정 모이씨에서 이 요셉반장  
(다가동 4가)
3. 매 주 토요일 오후 3시 주일학교, 어린이 미사 4시  
◎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4. 중·고등학생 교리: 매 주 토요일 오후 5시, 빠짐없  
이 교리시간에 나오시다.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상관공소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반회합: 반장님은 반원동원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15일(화)10반, 16일(수)12, 14반, 17일(목)11반, 18일  
(금)13반, 22일(화)15반, 23일(수)16반, 24일(목)17반  
25일(금)18반 ◎반원들의 협조 바랍니다.
3. 성 가정회 긴급회의: 다음주 공식미사 후  
◎ 회원 전원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문 규 현  
사도 회장 양 윤 호

1. 견진성사: 10시 미사중<교도소 18일(금) 오전 9시  
견진>
2. 자모회: 10시 미사 후
3. 성 가정회: 월요일 오후 2시
4. 공동체 묵상회: 26일(토) 오후 3시부터
5. 예비자 교리 미혼 남·녀-수요일 밤, 남자 성인-  
수요일 밤, 여자성인-주일 10시 미사 후.
6. 수녀 종식 허원식-17일(목) 11시, 노송동 천주교회
7.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14일(월) 저녁 8시 40분  
◎ 참석자-기념품 증정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수 신 태 정	창 제 류 인 음	성모회 월례회	5,500원	제 3 지구	주 현 동 등	부인회	45,000원	제 4 지구	중 앙 동 등	사도회 월례회	88,183원
			학생회 월례회	29,190원			신학생 후원회비를 완납 바랍니다.	33,076원			중·고등 학생 월례회	17,730원
제 2 지구	대 문 열 명 중 합	야 동 동 동 열	김정석 사도회 장 사임	5,200원	제 4 지구	덕 복 서 학 동 전	교리교사 모임 및 교리강좌	8,660원	제 5·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입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28,760원
			불우 이웃돕기 신우회 월례회	18,080원			성우회 월례회	17,728원			상관공소 사도회 월례회	17,728원
제 3 지구	대 문 열 명 중 합	야 동 동 동 열	입피, 마룡 공소 미사	7,500원	제 5·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입	견진성사, 자모회	91,362원	제 5·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입	사도회 월례회	8,010원
			학생회 중회	54,865원			성당 논(雀) 모내기 실시	6,452원			성당 논(雀) 모내기 실시	6,452원
제 3 지구	대 문 열 명 중 합	야 동 동 동 열	바다의별 꾸리아회	29,725원	제 5·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입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학생회	7,725원	제 5·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입	신용 협동조합 친목회	16,840원
			꾸리아회, 일우회	20,170원			청년회 월례회	20,170원			20일 유아세례 예정	4,225원
제 3 지구	대 문 열 명 중 합	야 동 동 동 열	청년회 월례회	20,170원	제 5·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입	신용 협동조합 친목회	16,840원	제 5·6 지구	무 장 진 남 순 입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13,875원
			분당 관할 구역장 회의	4,735원			상임 위원회 월례회	16,815원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13,875원